

[기고] 변곡점에 선 충북 농촌, '농촌공간 재구조화'로 새 지평 열 것

✎ 김경한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 Ⓞ 승인 2026.03.25 19:50

기고

현재 충북은 역동적인 성장과 인구 소멸이라는 상반된 현실이 교차하는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 청주·진천·음성을 잇는 중부권은 혁신도시와 대규모 개발로 강력한 성장 동력을 얻고 있지만, 수려한 자연을 품은 남·북부 지역은 인구 감소라는 냉혹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충청북도, 11개 시·군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에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이는 농촌의 삶터, 일터, 쉼터 기능을 복원하여 도시민과 농민이 교류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공존의 공간'으로 농촌을 재설계하는 담대한 여정이다.



김경한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농촌은 식량 안보의 거점이자 생태계의 보고로서 다원적 가치를 지닌다. 하지만 그동안 무분별하게 들어선 공장과 축사는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며 농촌 본연의 가치를 훼손해 왔다. 특히 악취와 소음은 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을 꿈꾸는 이들에게는 거대한 진입 장벽이 된다. 쾌적한 주거 환경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활성화 정책도 실질적인 결실을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정책의 지향점은 '사람'이다. 충북은 전국 1호로 괴산군 신평지구에서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시행하며 공간 관리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했다. 마을 한복판의 축사를 철거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한 것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큰 상징성을 갖는다.

또한 청주 금대, 음성 무극, 증평 화성지구 등에서도 유해 시설을 정비한 자리에 보육·문화 기반 시설을 구축하며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나아가 괴산 청안 선비마을과 보은 지역활력타운 등은 정주 인구를 넘어, 도시민이 정기

적으로 오가며 유대를 쌓는 '관계 인구' 형성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농촌이 도시민에게는 영감을 주는 쉼터로, 농민에게는 자부심 있는 일터와 삶터로 기능할 때 충북 농촌은 비로소 지속가능한 생명력을 얻게 될 것이다.

이제 한정된 토지 자원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충북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은 정부와 지자체의 계획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든든한 가교가 되고자 한다. 중앙의 정책이 지역 특성에 깊이 녹아들도록 밀착 지원하고, 지자체와 주민이 함께 그리는 청사진이 실질적인 지역 활성화라는 결실로 이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다.

충북의 모든 시·군이 소멸의 불안을 떨쳐내고 누구나 찾아오고 싶은 희망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원팀(One Team)'의 정신으로 협력하며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촌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한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농촌을 새롭게 창조하는 과정에서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경한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